

# 여야, 추경 심사 앞두고 '살바싸움'

### 이재명·윤석열 입김... 대선 전 고차방정식 여 "속전속결"...야 "매표예산" 쟁점 복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살바싸움에 나섰다.

양당은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뇌관이다. 본예산이 막 집행되는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원의 주자' 인양당 대선후보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와 재정당국, 즉 여·야·정의 입장조율뿐만 아니라 장외변수가 추가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심사·처리를 속전속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즉각 추경 협상"을 언급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조소협 원내대변인은 16일 "야당 대선 후보가 추경 필요성을 말했는데 당이 엇박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큰 이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워놓았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 가동하면 압축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조속한 지원

이 필요하다는 계속전속결 심사의 논리다.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추경 심사에 매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선거운동 전 추경이 처리돼야 표심에 반영될 것이라는 계산도 읽힌다.

다만 정부의 추경 총액이 14조 원에 그친 점은 고민거리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해온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민주당은 1월 마지막 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 작업을 진행 중인 재정 당국에 이러한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당국을 설득해 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매표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정 당국이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심본 반영한 선심성 예산을 줄속 편성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608조 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

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1월부터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추가 세수를 당장 끝이다 쓸 수 없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 계층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송곳 심사' 논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원안에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추경안에 여야 후보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담아야 '매표 추경'이라는 비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달 체험하는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16일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밀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UAE와 수소협력 논의

### 한국기업 진출 당부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방문을 위해 6박 8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6일(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라운드데이비에 참석했다.

순방의 첫 일정으로 UAE를 실무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라운드데이비에 행사에서 수소 산업과 관련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과 UAE 내 한국 기업의 진출을 당부했다.

이어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를 만담하고 인프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우주 협



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부산 엑스포의 의의를 알리는 한편,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정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엄지 척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16일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승리 퍼포먼스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16일 마포구 케이터룸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승리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DMZ관광 추진"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남북 철도 연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

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속초 조양감리교회 예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강원도 개발 공약에서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며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흥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 연결 등 계획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 윤, 대권 악재... '김건희 통화' 폭풍전야

### 지지율 타격 우려 대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이 16일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어디로 뿔지 모르는 돌출 변수로 떠올랐다.

김씨 통화는 이날 저녁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다.

과거 사적 대화가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야권에 약제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일단 방송 내용을 보고 판단 하지는 신중론으로 기우어 있다.

전날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관련 발언을 자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김씨 문제에 유독 목소리를 높인 예전과는 달랐다.

윤 후보가 선대위 해산과 내용 수습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던 길목에서 예기치 못한 번곡점을 만났다. 그는 국민 의힘 내부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당 관계자는 "김씨도 통화 녹음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100% 알지 못한다"며 "당 전체가 불확실성에 초긴장 상태"라고 난감해했다.

인사 개입 정황도 몰아 '최신실 국정 농단'의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라는 우려다.

통화 녹음 속 김씨 말투가 회견 당시와 확연히 다를 경우 허위 이력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역시 연기였다는 프레임은 씩을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부적합한 것이냐는 여론을 조정하려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는 김씨 본인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남편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역으로 동정심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가 정치공작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성공할 경우 '7시간 통화' 방송을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상대편에 거센 '역풍'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대본부장은 방송 이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당, 올리고당

1 주된치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9genil.co.kr

● 서울: 경자: 동부점 (02)552-4587 ● 북부점 (02)889-3192 ● 남부점 (02)829-4525 ● 관악점 (02)829-4599 ● 서양점 (02)574-2025 ● 동양점 (02)574-4901 ● 동남점 (02)574-4901 ● 동북점 (02)574-4901 ● 동서점 (02)574-4901 ● 동남점 (02)574-4901 ● 동북점 (02)574-4901 ● 동서점 (02)574-4901 ● 동남점 (02)574-4901 ● 동북점 (02)574-4901 ● 동서점 (02)574-4901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당, 올리고당

1 주된치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9genil.co.kr

● 서울: 경자: 동부점 (02)552-4587 ● 북부점 (02)889-3192 ● 남부점 (02)829-4525 ● 관악점 (02)829-4599 ● 서양점 (02)574-2025 ● 동양점 (02)574-4901 ● 동남점 (02)574-4901 ● 동북점 (02)574-4901 ● 동서점 (02)574-4901 ● 동남점 (02)574-4901 ● 동북점 (02)574-4901 ● 동서점 (02)574-4901